



#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초과세수 활용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보도내용>

- 2026.6.8. 머니투데이는 「[단독] “미래세대 위해 활용” ...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기사에서,
  -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미래세대와 성장 잠재력에 투자하는 기금 신설에 나선다.”며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가칭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중”이고, “올해 반도체발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재원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2026.6.8. 중앙일보는 「[단독] 반도체발 ‘50조+α’ 역대급 초과세수 ... 정부, 별도 기금 만든다」 기사에서,
  -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를 담아둘 별도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초과 세수의 일부는 조만간 출범하는 국부펀드를 통해 투자하고 일부는 기금 형태로 남겨 미래에 대비하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2026.6.8. 조선일보는 「재경부 ‘국부펀드’ vs 기획처 ‘미래대응기금’ 초과세수 활용 놓고 신경전」 기사에서,
  - “반도체 초호황으로 올해 최소 25조원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획예산처가 가칭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어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초과 세수를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황에서 기획처가 기금 신설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으며 초과 세수 활용을 둘러싼 부처간 엇박자 우려도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미래대응기금 신설, 국부펀드 투자 등 초과세수의 구체적 활용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정애 (044-214-2330)
		담당자	서기관	하치승 (hcs017@korea.kr)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여진 (044-215-4550)
		담당자	서기관	유형세 (hyongseyoo@korea.kr)

